

단편소설

누룩을 깎다

김해숙

그림=이매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고베비엔날레 초청작가
 ▲뉴욕·베이징 등 개인전 약 30회, 단체전 300여회 참가
 ▲전 환경미술협회 광주시지회장

남자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배보자기를 푼다. 항아리 속에는 밥알이 동동 떠 있다. 남자는 항아리 안의 물을 퍼 솥에 넣고 걸썩해질 때까지 끓인다. 돌복숭아 줄기와 뿌리를 넣고 오전 내내 만든 단술이다. 남자는 단술을 큰 밥그릇에 떠 꿀을 넣는다. 어릴 적 비쩍 마른 남자에게 아버지가 해 주었던 단술이 떠오른다. 남자는 바닥에 누워 있는 아들을 흔든다. 아들은 남자 손이 닿자 이마를 찡그린다. 남자는 그런 아들을 못 본 체 한다. 먹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이십 년 만에 재회한 터라 참고 있다.

“마셔라, 단술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았잖아?”
 “그냥 두라고요.”
 “이거 마시고 가라.”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들려요?”
 “가, 이제 와서 나랑 살 이유가 있어?”
 “살 거라고, 그냥 팍 눌러 살 거라고요!”

남자가 입을 닫는다. 아들의 험한 말을 들을 때마다 한 쪽 가슴이 먹먹하다. 아들은 처음, 오랜만에 만난 남자를 낯설어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변했다. 종일 방안에 누워 딱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남자가 타박을 허거나 말을 걸면 시위하는 사람처럼 목에 핏대를 세워 날카롭게 쫓았다.

아들이 온 뒤로 남자는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에 살던 아들이 갑자기 시골 공방을 찾아온 것도, 며칠 식한 밥알처럼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툭 쏘아 대는 것도 싫다. 아들은 이제 밥도 먹지 않는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 밥 대신 단술을 먹어라 해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남자의 행동을 주시한다. 남자는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지만 약초를 우려 낸 찌꺼기를 발로 짓기며 화를 식인다. 아들은 경계하고 낯설어하는 눈빛에서 점점 살기로 변해간다. 투명한 갈색 눈동자와 양쪽으로 가늘게 찌어진 매의 눈이다.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지내는 게 고단하다.

누룩을 띄우는 25도와 30도의 일정한 온도처럼

아내는 미지근한 상태로 남자를 대했다.

그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잊지 못했다. 화이트보드에 ‘酒’를 써 놓고 술의 어원에 대해 설명을 하려던 참이었다. 덩치가 큰 아들이 불쑥 들어와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아들은 정면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처럼 남지만 돌아서서 쳐다본다. 그 모습에 남자는 할 말을 잃는다. 농업기술센터 과정의 부타이 아니었다면 남자는 굳이 불 학기 강좌를 열지 않았을 것이다. 과정은 손을 비비고며 지원금이며 혜택, 실적 따위의 말을 내뱉었다. 남자는 곧 출시될 술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은 터라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전통주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남자가 머물거려서 개강 첫날이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사하러 왔다며 소개 시간을 달라고 한다. 남자는 그제야 술의 어원을 읊조리며 자리를 비킨다. 남자 목소리는 소장의 인사와 박수 소리에 묻힌다.

오전 수업이 끝났다. 남자는 오전 내내 술의 정의와 어원, 밑술을 담그는 여덟 가지 재료와 누룩의 종류를 순서 없이 지껓었다. 문헌을 찾아 정리한 책자가 있었다. 그 책만 봐도 순서가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아들을 본 순간 술속에 푹 가라앉은 지게미가 됐다. 남자는 차를 마시지는 수강생의 말도 무시하고 곧장 휴게실로 걸어간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들이 그 뒤를 따른다. 남자가 흐느적거리며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걷는 반면 아들은 곧은 일자로 걷는다. 남자는 입술을 짹 깨물고 큰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아들을 데친다.

“도대체 왜 그러냐?”
 “뭐요? 난 여기서 살 거라고요.”
 “이미 난 네 아버지가 살잖아?”
 “당신도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랑 이려고 싶지 않다. 돌아가.”
 남자가 돌, 아, 가, 라는 말에 잔뜩 힘을 준다. 반복되는 입씨름에 지친다.
 둘은 쉬는 시간 내내 침묵한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아들이 먼저 휴게실 문을 열고 나간다.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른다. 아들 뒤통수가 군데군데 비어 있다. 남자는 문득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손을 뻗었다 다시 내린다. 아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피한다. 가만히 두 손을 그려준다.
 통발을 분쇄기에 넣어 수강생들이 그 앞으로 몰린다. 몇몇은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실습하라고 지시해도 사진을 찍는 탓에 몇 번씩 수업이 중단된다. 남자는 분쇄된 밑을 채로 떠 밀기루를 제거하고 밀기울만 취한다. 빨간 고무통에 그것을 담고 살짝 물을 뿌린다. 밀기울과 물의 비

율이 팔 대 이라고 알려 준다. 남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밀기울이 손바닥에 영겨 붙지 않도록 바슬바슬하게 반죽하라고 이른다. 남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웅성거리며 조별로 실습에 들어간다. 다섯 명씩 4개 조다. 남자는 반죽이 다 되자 누룩 틀에 배보자기를 올려놓고 반죽을 채운다. 배보자기 끝을 오른쪽 감자 감자기 아들이 일어선다. 아들은 누룩 틀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뒤꿈치로 꺾쪽 눌러 밟는다. 그 모습을 보자 오래 전 아들 모습이 떠오른다.

남자와 아들은 좁은 공방에 웅송그리고 앉아 누룩을 빚고, 발로 밟았다. 누룩 틀 안에 담긴 작은 발 때문에 남자 눈이 흐려졌다. 남자는 울컥거리리는 마음을 누르고 누룩을 채웠다. 아들은 그 틀에 올라갔다. 심란한 남자 마음과 달리 아들은 소풍을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어떻게든 아내와 아들을 잡아 보려 했지만 더 이상 아내를 남자를 믿지 않았다. 누룩을 띄우는 25도와 30도의 일정한 온도처럼 아내는 미지근한 상태로 남자를 대했다. 그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남자는 누룩을 빚는 순간에도 아내와 아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누룩은 모든 술을 빚을 때 다 필요해. 누룩에 따라 술의 맛과 향이 달라진단다. 되도록 단단히 디터라.”

“저, 내일 서울 간대요.”
 “…….”
 “이제 안 올 거예요.”
 “…….”
 “진짜 안 올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누룩이 발효되면 좋은 균들이 커서 술을 만들지. 그래서 난 술을 빚는 게 아니라 키운다고 생각한단다. 잘 키워서 고맙다.”
 “아빠 품에 두드리기가 낫어요. 두드리기도 키우는 거예요?”

아들 말에 남자가 당황한다. 양쪽 팔뚝과 목, 얼굴이 가렵다. 남자는 눈에 띄는 곳마다 ‘절분초’ 생즙을 발랐다. 생즙을 바른 곳에 두드리기가 나면 아



이 곰팡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다. 아들에게서 온 것 누룩꽃이 한꺼번에 피어오른다. 곰팡이 꽃으로 가려진 아들 얼굴이 사라진다. 일그러진다. 남자는 심하게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제 정신이 돌아온다.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연다.
 “원망 안하셔요?”
 “뭘 말이나?”
 “어머니요.”
 “…….”
 “원망 안 하시냐고요?”
 “…….”
 “또 입을 다무시군요. 말을 하세요. 말할!”

아들이 매몰처게 황토방을 나선다. 남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몰그리며 바라본다. 욕을 들었을 때보다 얼굴이 더 화끈거린다. 남자를 배보자기 안에 넣고 눌러 찌는 것처럼 숨이 막힌다.

남자는 허전한 마음에 이제 막 익기 시작한 술 항아리의 배보자기를 벗겨낸다. 항아리에서 토도독 소리가 난다. 술을 잘 빚기 위해서는 효모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효모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발효 상태를 알 수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죽으로 빚은 밑술 항아리다. 밑술 재료에 따라 항아리 안은 발효되는 소리도 달라진다. 술을 빚을 때면 밑술에서 나는 항아리 소리가 정말 듣기 좋았다. 토도독 소리도 나고 고무방으로 빚은 밑술에서는 소나기 소리도 들린다.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꺾쪽 잡아대던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남자는 술이 익으면서 내는 소리에 취할 때도 있다.

남자는 아내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자신의 무능함이 아내를 지지게 했고, 빼앗기듯 아내를 놓쳤다. 아내는 마치 남자가 곰팡이라고 된 것처럼 질색하고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아내는 남자가 술을 빚을 때마다 누룩곰팡이가 좋은 효모라도 해도 믿지 않았다. 곰팡이는 흰색, 노란색, 검은색 이외에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곰팡이 등 종류도 다양하고, 서로 갖고 있는 능력도 조금씩 다르다. 남자는 아내에게 좋은 곰팡이를 얻는 것이 좋은 술을 얻는 비법이라 누우이 팔려줘도 아내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누룩꽃이 하얗게 피어도 소리를 질렀고, 잡균이 번식해 검은 곰팡이가 피면 아예 황토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남자에게 누룩을 띄우는 온도 같은 존재였다. 남자는 그런 아내를 품을 때마다 아내에게서 나오는 찌릿한 균을 다 죽이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남자의 친구를 사랑했지만, 그의 결백증으로 인해 잠시 남자에게 왔다. 남자는 어떻게든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곁은 미지근해도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남자는 그런 아내를 모른 척 했지만 순간순간 차갑게 느껴지면 아내를 폭력으로 제압하며 아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었다.

남자가 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만든 ‘쾌담주’가 내년엔 출시된다. 남자는 흥화, 구기자, 절분초 등이 지역에서 나는 약초로 청주를 만들 예정이다. 술 이름도 남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미 남자가 사는 군에 여덟 가지 약초로 만든 ‘팔뚝주’나 당귀와

산다화 등 향이 독특한 한약재를 넣어 빚은 ‘진고색주’를 만든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료와 비법을 공개하기 꺼려했기 때문에 시판용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꾸만 기술센터에서 특별한 비법을 찾으라고 하는 게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한다. 남자는 공방에 진열된 술병을 하나하나 쓰다듬는다. 마을 입구에 검정색 자동차가 들어선다. 남자는 마당에 나와 자동차가 멈춘 곳을 쳐다본다. 자동차가 멈추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여자가 내린다. 여자는 공방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린다. 옆에 있는 강아지를 몰그리며 쳐다본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남자에게 걸여온다.

아내다.
 남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내는 절분초의 근생엽처럼 얼굴이 둥글고, 팔다리는 가는디라고 길쭉했다. 지금 남자 앞에 가까이 있는 아내의 얼굴은 뺨살을 분쇄한 것처럼 희멀겁다. 게다가 남자와 살았을 때보다 온기를 더 잃어버린 듯하다.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를 훑는다. 아내는 무심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빛은 재빠르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남자는 작업복 바지에 묻은 밀가루 얼룩을 검지로 문지른다. 아내가 말을 건다. 말은 남자에게 하지만 시선은 아들이 있는 황토방에 가 있다.

잡힌 손목이 곰팡이라고 부러질 듯 위태롭다.

아들에게서 온갖 누룩꽃이 한꺼번에 피어오른다.

곰팡이 꽃으로 가려진 아들 얼굴이 사라진다, 일그러진다.

“들러보내.”
 목소리는 미지근한 온도, 그대로다.
 “대러 가.”
 “들러보내. 제발…….”
 “기라고 해도 안 가. 당신이 대러 가. 이제와 서로 영기는 거 나도 싫어.”
 “말어내, 당신이…….”
 남자는 대답 대신 아내의 눈빛을 살핀다. 아내는 입을 닫고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일부러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낸다. 한숨 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오기가 붉은 얼굴에 기가 질린다. 아내 모습에서 아들의 얼굴과 언제나 거들먹거리며 휘청휘청 걸었던 아내의 남편이 겹쳐진다. 셋의 얼굴이 합해지자 큰 키에 단단한 체구, 회색 빛 취를 닮은 눈빛이 남자를 보고 있다. 남자는 몸을 굽기 시작한다. 작업복 사이로 드러난 팔뚝과 다리, 얼굴이 가렵다. 남자는 짧게 깎인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는다. 아내가 콧방귀를 뀌다.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냐.”
 “제발,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야? 예전에 한 것도 모자라 이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든 그런 것이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난 그저 가려워서 긁는 거라고.”

“왜 또 해 보시지. 예전처럼 날 속이려고 절분초 생즙을 발라보시라고.”

“…….”
 “내가 미쳤었어. 그런 당신을 잠시라도 믿었던 게 후회스러워. 거짓된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상처만 보면 발길을 돌렸지.”

남자는 할 말이 없다. 그때는 어떻게든 아내를 붙잡고 싶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했다. 친구의 여자였던 아내를…… 2남자는 친구의 여자를 빼앗은 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남자는 삼킨 말이 많다. 사랑이라는 게, 윤리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희한한 상황은 금방 익숙해졌다. 그것을 끌어내거나 깎아낼 수 없었다. 남자는 반죽을 단단하게 뭉쳐 누룩 틀에 집어넣듯 자신을 다독이며 살았다. 헛된 욕망일지라도 남자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다. 다만 아내가 남자에게 왔을 때 완전히 소유할 수 없었던 게 후회스러웠다. 남자는 술을 빚고, 술이 키워지는 동안 아들을 키울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다. 아내가 떠나 버린 마당에 아무리 핏줄이라도 남에게 키, 위, 지, 기 때문에 남자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숨구쳐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

“제발, 대러 가. 가 버리라고!”
 “자기 자식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 많은 술을 빚어서 뭐해? 아, 마다. 당신은 술을 키운다고 했

지? 그대 당신 자식은 잘 키워냐?”
 “키우지 못하게 한 건 당신이야.”
 “키울 수 없게 만든 건 당신이야.”
 남자는 아들처럼 아내도 후려치고 싶다. 실컷 두들겨 패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내뿜고 싶다. 남자는 목울대로 침을 삼키며 침묵한다. 일이 커지거나 아들이 끼여들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마당에 아내를 그대로 둔 채 대문을 나선다. 공방과 연결된 황토방에서 아들은 소란스런 아내와 남자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남자가 힐끔거리며 황토방을 살피지만 인기척이 없다. 아들은 대자로 누워 남자와 아내가 하는 실랑이를 가만히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들에게 침묵시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남자는 좋은 일을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두 사람을 짓이기고 싶다.

아들은 황토방으로 들어선 아내를 아는 체하지 않는다. 대신 누룩 봉지에 얼굴을 대고 속함과 곱삭은 짓갈 같은 누룩 냄새를 맡는다. 아들에 한 번씩 빙글 돌아온 마트에 올려놓기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다. 딱 누룩에 잡균이 핀 곰팡이가 잔뜩 자랐다. 남자는 봉지를 낚아 채 누룩을 만져본다. 밑분했던 터라 약간 수분기가 있지만 이를 전보다 더 단단하다. 남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법제한 다음 다시 이빨을 닦는다.